



4면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머리 맞대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4월 9일 화요일 (음 3월 1일) 제348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새만금, 새로운 옷 준비한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본격... 2년간 30억 투입  
기업 친화 공간 탈바꿈 위해 첨단전략산업 조성 등 검토

새만금의 미래상이 새롭게 바뀔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그동안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투자실적 10조원 돌파,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각종 특례 적용 등 전세계 기업들이 주목하는 산업 중심지로 성장해 왔다. 이에 새만금 개발방향이 다소 바뀔 만큼 기본계획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새만금의 개발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은 올해부터 2년간 총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용역은 학술부문과 기술부문으로 나눠 추진하며 학술부문은 국토연구원 등에서, 기술부문은 현재 용역수행자

계약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새만금에 대한 대외적 여건과 위상이 달라졌음에 따라 이번 용역을 계기로 새만금을 기업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업용지 및 기반시설 확대와 첨단전략산업 조성계획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5개 권역체제로 구성된 것을 변경해 도시·농업용지의 통합 방안과 유보용지 등을 활용한 유연한 개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발 수요와 사업성을 검토해 용지별 개발순서를 세밀히 분석하는 것도 주된 과제이다. 전북자치도와 군산, 김제, 부안 등 인접 시군도 앞으로 추진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빠 움직이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지난 2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워킹그룹은 전북자치도, 전북연구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할 주요 아젠다 및 실행과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성과 보고서를 만들어 새만금개발청에 제안할 예정이다. 군산, 김제, 부안 등 도내 3개 시군도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반영할 신규사업 및 제안사항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자체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의 매립이 반절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재수립하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앞으로 20년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과정인만큼 이번 용역결과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을 포함한 전북자치도의 지역 발전을 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첨단전략산업 및 식품 허브 등 글로벌 특화 도시로서의 새로운 옷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제54회 전북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 시상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기능경기대회 입상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도내 대표 산업역군 발굴 전북 기능경기대회 마무리

자동차정비 등 34개 직종 130명 우수 기능인 선발  
8월 경복서 개최 전국대회서 지역 대표선수 출전

지난 4월 1일부터 5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던 제54회 전북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가 8일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오전 11시 전주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개최된 시상식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대회 관계자, 지도교사, 출전선수 등 200여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전주공업고등학교 등 도내 9개 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전년대비 1개 직종이 추가된 34개 직종에 14% 증가된 252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 결과, 금메달 36명, 은메달 35명, 동메달 35명, 장려상 24명 등 전북을 대표하는 기능인 총 13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상자에게는 상장, 메달과 함께 상금이 수여됐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우수기관은 대상에 강호항공고등학교, 최우수상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우수상에는 전주공업고등학교·한국게임과학교등학교가 공동 선정되어 상장, 트로피, 상금이 수여됐다. 2022년부터 시범종목으로 시작한 산

업용 드론제어는 전북하이텍고, 김제농생명고, 덕안정보고 3개 학교 12명이 참여해서 경쟁을 펼쳤고, 내년에는 전주공업고등학교 등 더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8월 경북도에서 개최되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선수로 참가해 전국에서 모인 숙련기술인들과 다시 한번 기량을 겨루게 되며,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면 시상금과 메달별로 고용노동부 장관상, 한국위원회 회장이 수여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한 분야의 기술력을 꾸준히 연마해 값진 결과를 얻어낸 입상 선수들과 지도교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8월 경북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서도 전북기술인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더 기량을 쌓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출발하며 미래형 모빌리티, 이차전지, 바이오, 기후테크 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고 갈 숙련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공중방역  
수의사 신규 17명 배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공중방역 수의사에 대한 기피가 심화하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신규 공중방역 수의사를 충원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공중방역 수의사 신규자 17명을 도내 방역기관에 배치한다고 8일 밝혔다. 공중방역 수의사는 기존 42명에 해당했으나 22명의 복무기간이 종료되고 신규자 17명이 투입돼 총 37명(시군 14, 동물위생시험소 23)이 배치됐다. 공중방역 수의사 제도는 2007년 도입된 방역대체 복무제도로, 수의대 졸업 후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군복무를 대신해 행정관서(시·군) 및 방역관서(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에서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가축방역 업무와 축산물 위생검사 업무 등을 맡는다. 현재 복무기간은 3년으로 현역과 비교해 기간이 길고, 봉급 또한 현역병과 큰 차이가 없어 적극적으로 지원자가 지속 감소하는 실정이다. /김재훈 기자

10일 국회의원 선거 관계로  
신문은 11일 발행합니다.

##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 예고

다포계 맞배지붕 건축물 희소성 가치 인정

고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인 '고창 문수사 대웅전'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8일 밝혔다. 고창 문수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선운사의 말사로, 664년(백제 의자왕 4)에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창건했다고 전하고, 연기설화(緣起說)를 바탕으로 문수보살과 문수도량(文殊道場)의 신앙적 특성을 반영해 그 위계가 잘 표현된 사찰이다. 고창 문수사 대웅전은 문수사 창건기(1758년) 등 각종 기록에 따르면, 임진왜란 후 1607년(선조 40)에 중창됐고, 1653년(효종 4)에 회적성오(와 상유 비구)가 3중창한 것으로 그 역사적 가치가 크다. 이후 1823년(순조 23) 중수(1차)와

1876년(고종13) 고창현감 김성로의 시주로 목암이 중수(2차)했다. 1924년에는 해체 수리과정에서 당시 도편수가 재조립을 못한 것을 부편수였던 고창 출신의 대목장 유익씨가 마무리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창 문수사 대웅전은 2016년 보물로 지정된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모신 법당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건물은 5량 구조의 내외 3출목 다포계 맞배지붕으로, 공포의 형태와 짜임은 강직한 조선 전기이후의 양식과 호남 지역적 특색이 나타나는 등 1653년 중창 당시의 형태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크다. 특히, 4면에 공포를 배열하고 층



고창 문수사 대웅전 전경

량과 활주를 사용한 팔작지붕 형식이나, 후대에 맞배지붕으로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다포계 맞배지붕의 기법과 양식을 충실하게 갖춰 외부 의장의 완결성과 장엄적인 효과를 극대화해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다. 또한, 대웅전의 단청 역시 문양사적 특이함과 전통 무기안료와 야교 사용 등 천연재료 특성의 옛 기법이 남아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